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강원권 건설공사 발주 공공기관 간담회 열어

- 강원권역 19개 유관기관 참여, 발주자의 법정 의무 이행 및 책임성 강화 당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청장 김상용)은 2026. 2. 24.(화) 14:00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와 강원권역 주요 공공기관 발주부서 관계자 등 19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공사 발주 공공기관 중대재해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분리발주 공사 및 관급자재 설치공사 등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비 미계상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등 발주자의 법정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발주 단계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공공기관의 선제적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최근 중대재해 발생 사례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공유하며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강원지청은 향후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에 대한 선제적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는 발주자의 법정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등 엄정하게 감독할 예정이다.

김상용 지청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은 시공 단계 이전, 발주 단계에서부터 결정된다.”라고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이 발주자로서 법정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건설 현장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출발점인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적극 동참을 바랍니다.”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산재예방감독과	책임자	과 장	유정민 (033-269-3580)
		담당자	근로감독관	이선아 (033-269-3584)

